

# ‘프리미엄 폰’ 열광하는 韓에 ‘가성비 폰’ 들이치는 美·中

中 모토로라 ‘엣지30 5G’ 출시  
59만원대 출시... ‘0원 구매’ 가능  
美 구글 ‘픽셀7’ 국내출시 가능성  
국내소비자 고가라도 ‘질’ 우선시  
사용자 61% 100만원 이상 폰 사용  
“애플 외 외산폰 힘쓰기 어려워”

해외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한국 중저가폰 시장 공략을 시도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레노버 자회사 모토로라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세계에서 가장 얇은 5G스마트폰 ‘엣지30’을 국내에 출시하며 중저가폰 시장에 등장했다. 6.79mm라는 얇은 두께와 후면 카메라는 5000만 화소, 전면 카메라는 3200만 화소를 제공한다.

해당 모델의 경쟁력은 역시나 ‘가격’에 있다. ‘엣지30 5G’의 국내 출시가는 59만9000원이다. LG헬로비전의 알뜰폰 브랜드인 헬로모바일로 개통하면 월 2만9000원 5G 요금제부터 최대지원금이 적용돼 기기값 ‘0원’으로 구매할 수



모토로라 스마트폰 ‘엣지30 5G’ /모토로라

있어 이목을 끈다. 지난 5월 30만원대 가격의 ‘모토 G50 5G’와 ‘엣지20 라이트 5G’ 출시 후 5개월 만에 조금 더 향상된 기능으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며 시장에 나선 것이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미국 구글이 만든 스마트폰 ‘픽셀7’의 국내 출시도 점쳐지고 있다. 픽셀7은 구글이 자체

제작한 AP인 ‘텐서2’를 사용하고 있다. 해당 칩은 AI 머신러닝과 음성인식이 가능하고 라이브 번역과 음성보조 타이핑을 지원한다. 구글은 10월 초 열린 뉴욕 ‘메이드 바이 구글’ 행사에서 “소비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진 화질 개선과 동영상 촬영 질 개선도 이뤄졌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해당 폰에는 배터리 세이버 모드를 사용하면 단 한 번의 충전으로 최대 72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초절전 배터리와 지문 인식 센서도 장착돼 있다.

하지만 세계적인 경기 침체 속 스마트폰 수요 부진이 여전하고 한국 스마트폰 시장은 ‘가성비’보다는 고가라도 ‘질’을 우선시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갤럭시S 시리즈와 갤럭시Z 시리즈 판매 성적이 삼성전자 MX부분 실적을 견인했다. 삼성전자는 3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했고 ‘프리미엄폰’으로 분류되는 아이폰 14 시리즈를 출시한 애플이 글로벌 스

마트폰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했다.

그에반해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의 출하량은 더 하락했다. 업계 3위인 중국 제조업체 샤오미의 올해 3분기 실적은 전년 대비 11.2% 감소했다. 2분기 보다는 소폭 반등한 수치지만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오포, 비보 등도 하락세를 보였다.

시장조사업체 인터내셔널 데이터 코퍼레이션(IDC) 집계에 따르면 집계에서 삼성전자의 3분기 스마트폰 출하량은 6400만대로 점유율 21.2%를, 2위 애플은 5190만대(17.2%)를 기록했다. 뒤이어 ▲샤오미, 4050만대, 13.4% ▲비보, 2590만대, 8.6% ▲오포, 2580만대, 8.6% 순이다.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에서 손을 떼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3의 스마트폰’으로 옮겨갈 것으로 기대했지만 사실상 애플과 삼성전자의 양강 구도가 강해지고 있는 셈이다. 특히 업계 관계자는 “한국의 애플 외의 외산폰은 힘을 쓸 수 없는 체제가 공고하다”며 “실생활에 가장 밀접한 전자기기의 ‘질’을 우선시하는 한국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열기

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A/S 부분에서도 삼성이나 애플의 서비스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이 많다.

시장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국내 스마트폰 점유율에서 샤오미의 점유율이 소폭 약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삼성전자가 77%, 애플이 23%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차이를 보였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LG의 공백은 폴더블폰의 흥행을 이룬 삼성전자가 차지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한국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61.1% 가량이 100만원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한국소비자연맹은 국내 이동통신 3사 공식몰 등 5개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5G 단말기 판매 가격을 조사한 결과, 단말기 평균 가격은 115만5421원으로 높게 책정됐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23 시리즈를 준비하며 프리미엄폰 개발 집중에 나서는 모습이다. AP로 퀄컴의 스냅드래곤82세대가 장착할 것으로 보이며, 8GB 램과 246GB의 저장 용량 등을 갖출 전망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 SK케미칼, 화학적 재활용 식품용기 만든다

풍림P&P와 개발 업무협약 체결  
스카이펫CR 활용 용기 개발·양산

SK케미칼과 풍림P&P가 국내 최초로 화학적 재활용 소재 식품용기 생산을 위해 손을 잡았다.

SK케미칼은 판교에 위치한 SK케미칼 본사 사옥에서 이동규 풍림P&P 대표이사, 김응수 코폴리에스터사업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화학적 재활용 식품용기’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풍림P&P는 오투기 브랜드의 식품용기 및 포장재 등을 생산하는 식품 포장재 전문기업이다. ESG 경영 강화에 따라 포장재 생산 전 공정에 친환경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으며, 친환경 소재 도입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화학적 재활용 원료 ‘r-BHET’가 99% 사용된 SK케미칼의 ‘스카이펫(SKYPET) CR’을 활용하여 다양한 식품 접촉용기를 개발하고 양산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SK케미칼은 식품용기 양산에 필요한 ‘스카이펫(SKYPET) CR’을 공급하고, 풍림P&P는 이것을 활용해 재생원료 함량 99% 용기를 개발, 글로벌



SK케미칼-풍림P&P ‘화학적 재활용’ 식품용기 양산 MOU. SK케미칼 김응수 코폴리에스터사업부장(왼쪽), 풍림P&P 이동규 대표이사. /SK케미칼

별 리사이클 스탠다드(GRS) 인증도 획득할 방침이다.

‘GRS 인증’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자율 인증으로 재생물질, 연계 보편성, 사회적·환경적 관행, 그리고 화학물질 규제에 관한 제삼자 인증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완제품 표준 인증 기준이다.

‘화학적 재활용’은 폐플라스틱을 분해시켜 순수한 원료 상태로 되돌려 고분자인 플라스틱을 제조하는 기술이다. SK케미칼의 ‘스카이펫(SKYPET) CR’은 기존 석유화학기반 페트(PET) 소재 대비 온실가스를 약 70% 감축하

는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삼다수가 스카이펫 CR이 적용된 생수 리본(RE:Born)을 출시한데 이어 섬유, 필름 용도 시장에서도 온실가스 저감소재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동규 풍림P&P 대표이사는 “친환경 실천은 인류의 지속생존을 위한 최후의 활동으로 절박함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할 우리 모두의 사명이다”며,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저탄소 용기를 개발하고 사용해 ESG 경영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 KG스틸, 12개 제품군 ‘EPD 인증’ 획득

국내 첫 성과... 글로벌 공략 속도

KG스틸이 컬러강판 기술력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높인다.

KG스틸은 국내 컬러강판사 최초로 냉연강판과 아연도강판, 석도강판, 컬러강판 등 12개 제품군에 대해 해외 기관으로부터 환경성적표지(EPD) 인증

을 취득했다고 1일 밝혔다.

EPD는 제품생산이 환경에 미치는 정보를 소비자에 정확하게 제공해 친환경적 소비를 유도하고자 도입된 제도다. 원료채취·생산·유통·사용·폐기 등 제품 수명의 모든 과정에 대한 환경영향을 계량적으로 표시한다.

KG스틸이 이번엔 취득한 EPD는 스

웨덴 민간협력 환경연구소 산하 EPD International로부터 취득함으로써 국제적으로 공신력이 확보했다는 회사측의 평가다.

KG스틸 관계자는 “이번 인증 획득은 내년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범운영을 앞두고 일관된 선제적인 행보”라며 “국제 인증을 취득한 만큼 회사는 향후 예상되는 해외고객사의 탄소배출량 제출 요구에 실시간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기대했다. /양성운 기자

## LG전자, 작은 주방에 딱! 식기세척기 출시

‘LG 디오스 오브제컬렉션 6인용’

LG전자 소형 식기세척기가 새로 나왔다.

LG전자는 ‘LG 디오스 오브제컬렉션 6인용 식기세척기(사진)’ 신제품을 최근 출시했다고 11월 1일 밝혔다.

신제품은 작은 크기에 오브제컬렉션 컬러와 디자인을 적용해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루는데 중점을 뒀다. 특히 설치 지 양이 적은 1~2인 가구나 주방이 협소해 비교적 부피가 큰 12인용 식기세척기 설치가 어려운 고객에게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디오스 오브제컬렉션 6인용 식기세척기는 LG전자가 국내 창원에서 직접 생산하며, 매력적인 디자인뿐만 아니라 강력한 세척과 건조 성능으로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한다는 목표로 기획됐다. 하단의 듀얼 세척날개와 뒷면까지 3



중으로 분사되는 34개의 고압 물살로 식기를 구석구석 깨끗하게 세척한다. 내부 습기는 상단 배출구로 내보내면서 뜨거운 바람을 이용한 열풍건조로 세척 후 식기에 남은 습기를 보송하게 말려준다.

뛰어난 위생 성능과 다양한 편의 기능도 두루 갖췄다. /김재용 기자 juk@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 현대모비스, 中서 모빌리티 신기술 공개

5~10일 ‘국제 수입박람회’ 참가

현대모비스가 오는 5일부터 10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제5회 국제 수입박람회에 참가해 친환경 모빌리티 신기술을 선보인다.

올해로 중국사업 진출 20주년을 맞이한 현대모비스는 “더 나은 미래”를 주제로 전시관을 마련하고, 중국사업 성과와 함께 현지에서 독자적으로 개발 중인 신기술과 사업전략을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2002년 중국 장쑤성에 위치한 모듈공장 설립을 시작으로 베이징과 톈진 등에서 모듈과 핵심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국제수입박람회는 현지 정부가 중국

에서 활동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을 초청해 개최하는 대형 박람회다. 올해는 상하이 국제컨벤션센터에서 모빌리티, IT, 바이오, 소비재 등 총 6개의 주제로 3천여 개의 글로벌 기업들이 참가한다. 팬데믹 이후 관광객들의 대규모 방문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모비스는 배터리와 연료전지 기반 콘셉트인 엠비전 콤팩트와 엠비전 투고를 전시관 전면에 배치해 선보인다. 모두 현대모비스가 도심형 차량 공유 시장을 겨냥해 개발하고 있는 친환경 모빌리티 플랫폼이다. 한편 현대모비스는 수입박람회에 현지 언론사와 유명 SNS 인플루언서를 초청하는 미디어 간담회도 개최한다. /양성운 기자 ysw@